

| 8문 8답 |

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무엇이 달라졌나

이세종 전문위원

1. 새로운 비전 수립

“격차가 없는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기”



2. 위상 강화

“경사노위 합의가 최고의 권위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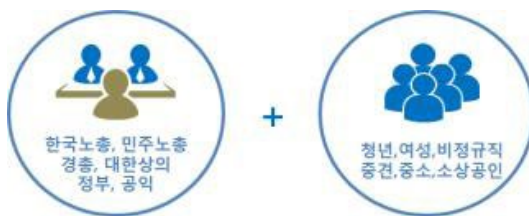


* 문재인 대통령 11.22. 출범식 “경사노위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”

3. 위원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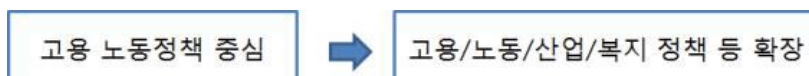
“더 많은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”

한국노총, 민주노총, 비정규직, 청년, 여성, 한국경총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, 소상공인협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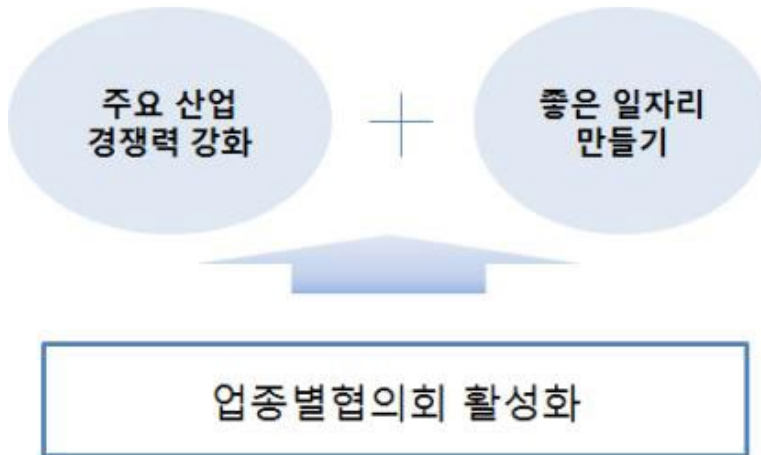
4. 논의 의제

“일자리와 노동문제는 기본, 경제와 복지도 다룬다”



5. 업종별위원회 활성화

“주력 산업의 불확실한 미래와 고용에 노사정이 공동 대응한다”



6. 특별위원회 신설

“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발 빠른 대화체”

의제별·업종별 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 위원회

7. 계층별위원회 신설

“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낸다”



8. 당사자 중심의 운영방식

“노사가 합의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”

